**2-4**

# 아토피 피부염 영유아의 특수분유에 대한 치료반응

임선정*, 노건웅[1] , 이상선[2]
푸드 바이오테크(주)*, 서울알레르기 클리닉 서울본원[1] , 한양대 식품영양학과[2]

최근 식이 및 환경오염 등의 영향으로 알레르기 발생빈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아토피 피부염 등의 알레르기 증상을 보이는 영유아의 치료로 특이조제분유를 이용한 식이조절 요법이 제시되고 있다. 영유아기에 가장 흔한 알레르기는 우유 단백에 대한 알레르기로서, 우유 단백을 가수분해한 분유 또는 대두단백으로 만든 특수분유를 섭취하여야 하는데, 실제로 임상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임상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영유아에서 우유단백 가수분해 분유와 대두 분유에 대한 치료효과를 확인하여, 임상적 적용을 위한 자료를 얻고자 하였다. 서울 알레르기 클리닉 서울 본원에 내원한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분유 섭취 영유아 265명(남아:여아 = 15_:113, 연령분포 1~13개월)을 대상으로 하였다. 우유 단백 가수분해 분유와 대두분유의 선정은 무작위로 하였다. 각 분유에 대한 치료 반응은 각각의 특수분유 섭취 후 피부 발진 및 가려움증의 섭취 후 발현 또는 지속적 소실로 판정하였다.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영유아 195명을 제 1군으로 우유 단백 가수분해 분유를 먼저 섭취시켰을 때 증상이 호전된 경우는 85.1%(166/195)였고, 증상의 호전이 없거나 악화된 경우는14.9%(29/195)였다. 증상의 호전이 없거나 악화된 경우에 대두 분유로 바꾸어 섭취시켰는데 11.9%(23/195)는 증상이 호전되었고 3.0%(6/195)는 계속 증상이 호전이 없거나 오히려 악화되었다. 다른 70명을 제 2군으로 대두분유를 먼저 섭취시켰으며, 증상이 호전된 경우는 63.0%(45/70)였고 증상의 호전이 없거나 악화된 경우는 37.0%(25/70)였다. 증상의 호전이 없거나 악화된 경우에 우유 단백 가수분해 분유로 바꾸어 섭취시켰을 경우 증상이 호전된 경우는 30.0%(21/70)였고, 나머지 7.0%(4/70)는 증상의 호전이 없거나 악화되었다. 우유 단백 가수분해 분유와 대두분유 모두에 치료반응이 있는 영유아의 분포를 조사하기 위하여 제 1군에서 우유 단백 가수분해 분유 섭취 후 증상이 호전된 영유아 166명 중 무작위로 20명을 선정하여 대두 분유를 섭취시켰을 때 증상이 호전된 경우는 40.0%(8/20)였고, 증상의 호전이 없거나 악화된 경우는 60.0%(12/20)였다. 즉 우유 단백 가수분해 분유 및 대두분유에 모두 치료반응이 좋은 아토피 피부염 영유아는 34.0%(85.1% 중 40.0%)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부터 우유 단백 가수분해 분유의 치료반응율(85.1%)이 대두분유(63.0%)에 비해서 더 높으므로 아토피 피부염의 경우에 치료를 위하여 우유 단백 가수분해 분유가 특수분유 선택시 1차적으로 권장된다.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영유아의 경우에 식이조절만으로도 약 95%의 치료율을 보이므로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영유아는 반드시 알레르기 특수조제분유에 의한 치료로 아토피 피부염등의 알레르기 질환의 진행을 막아주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아토피 피부염을 비롯한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을 위해서는 분유보다는 가급적 모유를 먹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